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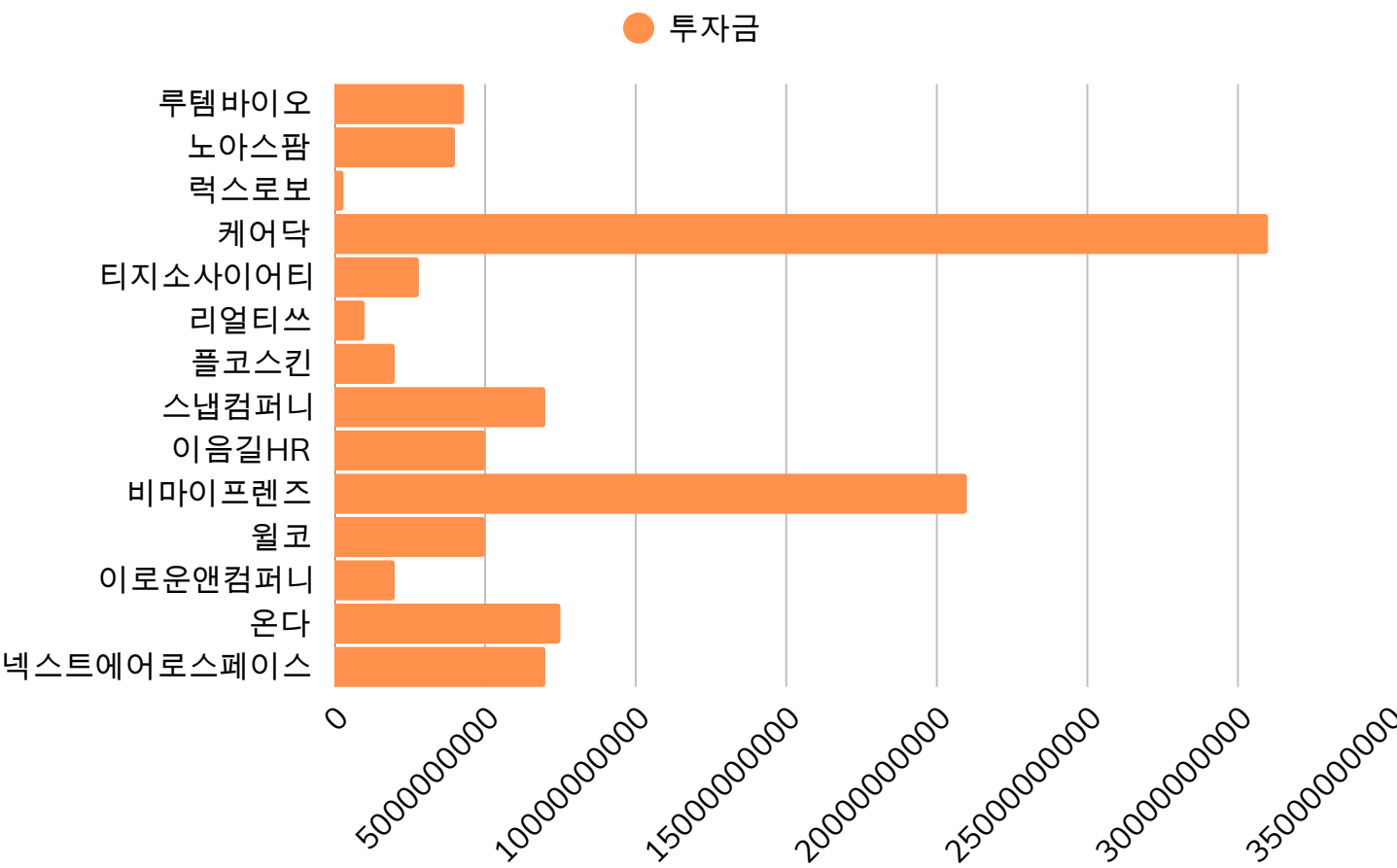
startuprecip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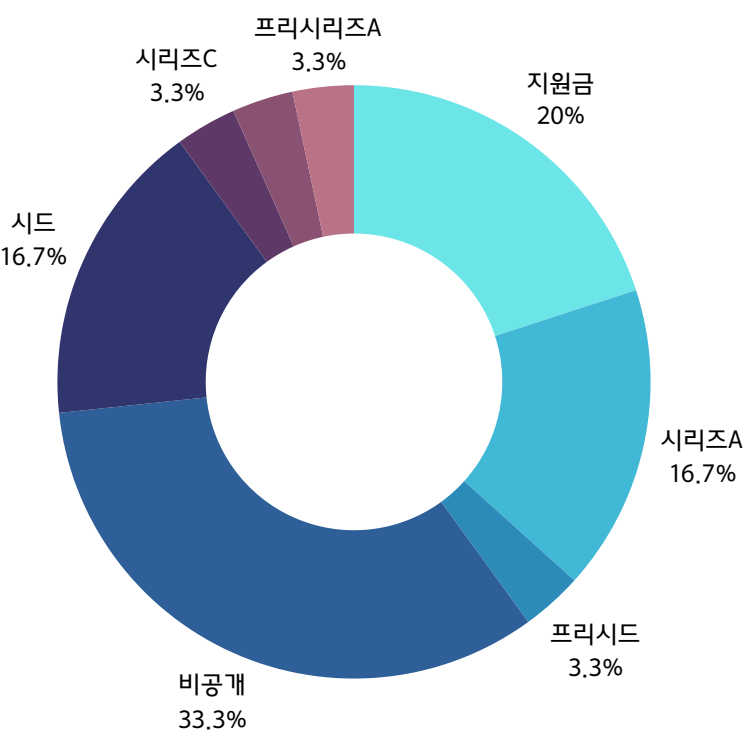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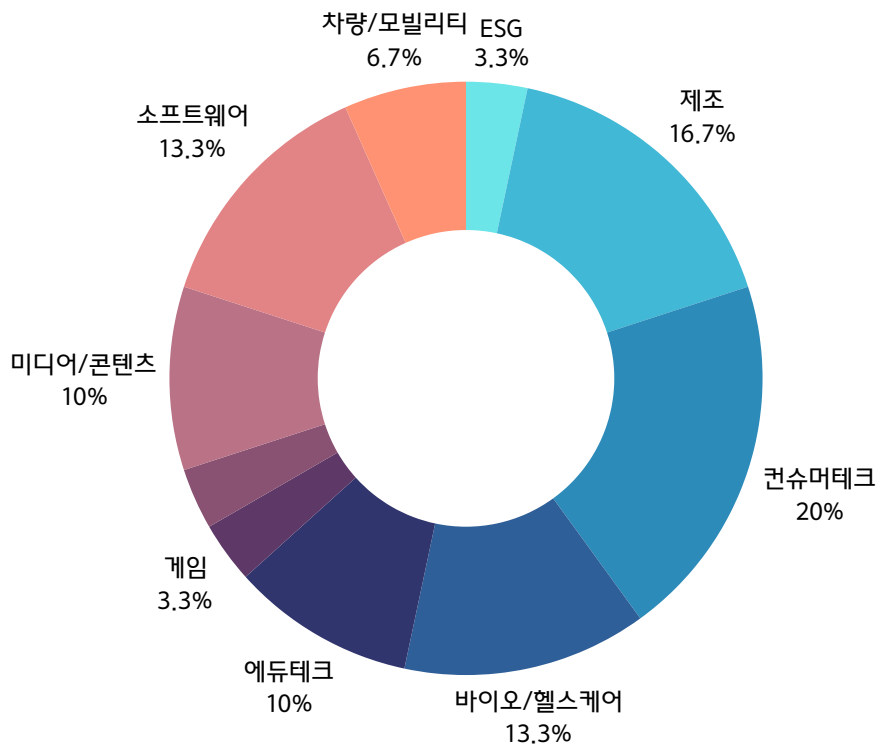
2025년 10월 20-24일 주간 투자 동향



2025년 10월 20~24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30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4개 기업이 999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원금이 2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시리즈A와 시드가 각각 16.7% 순을 보였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 컨슈머테크 20%에 이어 제조 15.6%, 소프트웨어와 바이오/헬스케어가 각각 13.3%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보면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케어닥이 310억원 규모 투자를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팬텀 플랫폼 기업인 비마이프렌즈가 210억원, 숙박 OTA 소프트웨어 기업인 온다가 75억원, 유무인 항공기 전문 기업인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가 70억원 투자를 확보했다.

루템바이오 : 43억원 시리즈A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루템을 운영하는 루템바이오가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총 43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발랑스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키움증권 등이 기존 투자자로 참여했고, 나이스투자파트너스, NH농협은행, iM투자파트너스가 새롭게 합류했다. 모든 투자사는 농식품펀드를 활용했으며, 루템바이오는 침체된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설립된 루템바이오는 네추럴웨이 출신 창업진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창업 첫 해 17억원 매출을 기록한 이후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27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투자금은 제품군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용될 예정이며, 베트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 루템바이오는 전문가 협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다.

노아스팜 : 40억원



푸드테크 스타트업 노아스팜이 프리시드 단계에서 4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사제 파트너스를 비롯해 국내외 5개 투자사가 참여했다. 노아스팜은 바이오·AI·향미화학 기술을 융합해 식품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향미 인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 AI 모델 'N-Palette1'을 통해 다양한 식재료의 맛을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다. 공동창업자 장영준 대표는 타파스미디어와 루이드를 성공적으로 창업한 연쇄창업가로, 강민준 CTO는 서울대 의대 박사과정 중 기술 상용화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다. 노아스팜은 향후 AI 기반 향미 원료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능성과 비용 효율을 갖춘 식품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럭스로보 : 3억원



교육용 로봇 '모디' 개발사 럭스로보가 3년 만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PCB 설계 소프트웨어 신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회사는 에이프로를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RCPS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매출 급감과 유동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2300억원을 유지한 점이 주목된다. 럭스로보는 2022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 하락했으며, 올해 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은 11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5년간 준비해온 PCB 설계 프로그램이 사업성을 인정받으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급 엔지니어도 고급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향후 추가 투자도 기대된다.

케어닥 : 310억원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닥이 프리미엄 시니어하우징 브랜드 '케어홈 프리미엄'을 통해 3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확보했다. 현대차증권이 주관한 이번 PF는 케어닥의 운영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케어홈 프리미엄은 IoT 기술과 헬스케어 솔루션을 접목한 고급형 시니어 주거 모델로, 현재 수원 권선동에서 개발 중이다. 앞서 인베스코와 38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선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화토건·한국씨엔티·신한자산신탁 등과 협력해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케어닥은 시니어하우징 디자인 연구소 설립과 합작법인 케어오퍼레이션 출범을 통해 요양시설, 복지주택 등 다양한 모델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티지소사이어티 : 28억원 시리즈A



운전선생

운전학원 비교·예약 플랫폼 '운전선생'을 운영하는 티지소사이어티가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28억 원을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패스트벤처스와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 스트롱벤처스도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운전선생은 학원 정보 비교부터 교육 일정 관리, 셔틀 안내, 서류 접수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학습자 편의성과 학원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티지소사이어티는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SaaS 기반 학원 운영 통합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AI 추천 기술과 맞춤형 광고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향후 운전 교육 시장의 표준화 지표 구축과 일본 등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얼티쓰 : 10억원



AI 기반 치과보철물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얼티쓰가 에이치지이니셔티브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투자는 리얼티쓰의 기술력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자사 솔루션 'REAL TEETH'를 통해 3D 디자인과 품질 검증을 자동화함으로써 기존 수작업 방식 대비 정확도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리얼티쓰는 지난해 사업장 확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 국제 상표를 출원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투자로 리얼티쓰는 약 2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덴탈 시장에서 AI 스마트 제조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코스킨 : 20억원



PLCOSKIN

조직재생 의료기기 전문기업 플코스킨이 BNH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플코스킨은 폴리카프로락톤(PCL) 기반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해 연조직 재건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주력 제품 '티슈덤'은 기존 사체유래진피(ADM)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대체재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병원에 공급 중이며, 연내 공급처를 4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방재건, 피부미용 등으로 제품군도 확장 중이다. 플코스킨은 FDA 승인과 유럽 CE MDR 인증을 추진하며 북미·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는 강지수 전무가 주도했으며, 플코스킨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다.

스냅컴퍼니 : 70억원 시리즈B



이커머스 특화 솔루션 기업 스냅컴퍼니가 스틱벤처스로부터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SaaS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금은 광고 자동화와 고객관리 솔루션 성능 향상, AI 기반 이러닝 모델 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스냅컴퍼니는 2017년 설립 이후 광고·CRM 중심의 SaaS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 34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LG생활건강과 대웅제약 등 주요 기업이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상품 배열 자동화 시스템 '스냅큐', 광고 전략 분석 도구 '스냅애즈', 정밀 CRM 솔루션 '스냅푸시' 등이 있으며, 리뷰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 기능도 제공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의 스케일업 팁스 과제에 선정돼 총 15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음길HR : 50억원



전직지원 및 기업교육 전문기업 이음길HR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대성창업투자로부터 총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자금은 AI 기반 전직지원 플랫폼 고도화, B2C 서비스 확대, 기업 및 AI 교육사업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음길HR은 하나증권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공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커리어 로드맵 고도화, 공중파 광고를 통한 브랜드 강화, 경력 단절 여성·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해외 시장 진출 등 다각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HR 통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비마이프렌즈 : 210억원



글로벌 팬덤 플랫폼 '비스테이지'를 운영하는 비마이프렌즈가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굿워터캐피탈로부터 2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브릭스펀드 투자에 이은 연속 투자로, 아시아와 북미 양대 시장에서 전략적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굿워터캐피탈은 비스테이지의 IP 기반 맞춤형 플랫폼 구조와 B2B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비스테이지는 광고, 팬클럽, 이커머스, 커뮤니케이션, 행사 운영 등 팬덤 비즈니스 전반을 통합 지원하며, 현재 300개 이상 플랫폼과 9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팬들과 소통 중이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와 일본 아이돌 그룹과의 협업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마이프렌즈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팬덤 비즈니스 360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윌코 : 50억원 시리즈A



고기능 전자소재 스타트업 윌코가 총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참여했다. 윌코는 고방열·저유전 동박적층판(CCL)과 전기차 배터리용 단열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국방, 전장, AI 컴퓨팅 등 차세대 산업에서 핵심 소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시스템, LG, 콘티넨탈AG 등과의 기술 검증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도 입증했다. 확보한 자금은 MARU-Series 양산 라인 구축, 방산·전장용 소재 인증 확대, 글로벌 고객 대응을 위한 R&D 고도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1년 설립된 윌코는 독자 기술 기반의 NURI, MARU, IEUM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로운앤컴퍼니 : 20억원 프리시리즈A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기업 이로운앤컴퍼니가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A 라운드 투자금 20억 원을 유치했다. KB인베스트먼트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과 사용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로운앤컴퍼니의 기술력에 주목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세이프엑스(SAIFE X)'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AI 사용을 통제하고, 프롬프트 보안 기술을 통해 민감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AI 사용 이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 추적 기능도 제공하며,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윤두식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제품 고도화와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일본 진출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다 : 75억원



국내 숙박 OTA 소프트웨어 기업 온다가 75억 원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경영 정상화와 사업 확장의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해 티몬 사태로 약 90억 원의 손실을 입으며 존폐 위기에 몰렸던 온다는 실적 반등과 함께 투자 유치에 나섰고, 비전에쿼티파트너스가 주도해 건설사 및 개인투자자 참여를 이끌었다. 온다는 AI 기반 통합 판매 시스템 '온다 허브'를 중심으로 국내 숙박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LLM 기술을 활용한 AI 비서 출시도 예고했다. 8월에는 월 거래액 180억 원, 순이익 5.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내년에는 거래액 3천억 원, 순이익 50억 원을 목표로 IPO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호텔 테크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비전에쿼티는 온다의 M&A 전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무인 항공기 전문기업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가 대신프라이빗에쿼티 (PE)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내년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번 투자는 대신PE가 조성한 2000억 원 규모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기업가치는 약 600억 원으로 평가됐다. 대신PE는 향후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약 1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초로 수직이착륙 무인기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 방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확보한 자금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번 투자와 IPO를 통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주간 체크 포인트

경북-포스코 1000억 규모 펀드 결성...지역 대기업 첫 참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고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가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첫 사례로 향후 이 모펀드를 기반으로 2,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800억원 이상을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 및 경북 이전기업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결성된 4개 지역모펀드(충남, 부산, 강원, 경북)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자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20-24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메타에너지프런티어	에너지 조명 기술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에피솔루션	에피 웨이퍼 파운드리	비공개	지원금	딤테크팁스
루템바이오	건강기능식품	43억원	시리즈A	발랑스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키움증권, 나이스투자파트너스, NH농협은행, iM투자파트너스
노아스팜	푸드테크	40억원	프리시드	사제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개인투자자
더블엠소셜컴퍼니	보건교육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렉스로보	로봇 교육	3억원		에이프로
케어닥	시니어 플랫폼	310억원		
티지소사이어티	운전면허 학원 플랫폼	28억원	시리즈A	패스트벤처스, 신용보증기금, 스트롱벤처스
아폴로스튜디오	게임 엔진	비공개	시드	카카오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컨테인어스	항만 물류	비공개	시드	시리즈벤처스
디앤아이파비스	AI 검색 기술	비공개	인수합병	남도마켓
픽톤	뷰티 브랜드	비공개	인수합병	오션프론트파트너스
뮤드메이트	색조 화장품 브랜드	비공개	인수합병	이선컴퍼니
비버웍스	키오스크	비공개		비바리퍼블리카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	뷰티 바이오	비공개	시리즈C	신세계인터내셔널, 시그나이트
리얼티쓰	AI 기반 치과보철물	10억원		에이치지이니셔티브
플코스킨	생분해성 조직재생 의료기기	20억원		BNH인베스트먼트

스냅컴퍼니	이커머스 특화 솔루션	70억원	시리즈B	스틱벤처스
이음길에이치알	기업 교육	50억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비마이프렌즈	글로벌 팬덤 솔루션	210억원		굿워터캐피탈
팀제로코드	글로벌 세일즈 AI SaaS	비공개	시드브릿지	
아트라미	D2C 커머스	비공개	시리즈A	무신사파트너스, 신용보증기금
섬에어	지역항공 모빌리티	비공개		뮤어우즈벤처스
월코	고기능 전자소재	50억원	시리즈A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미래셋벤처투자
프라이데이즈랩	AI마케팅 에이전트	비공개	시리즈A 브릿지2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제스트	AI 디지털트윈 솔루션	비공개	시드	강원대학교기술지주
비에이치에스엔	리걸AI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이로운앤컴퍼니	AI 보안	20억원	프리시리즈A	KB인베스트먼트
데이타커맨드	마이그레이션, 재해복구	비공개	인수합병	오케스트로
제트론	화이트 바이오 제조	비공개	시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온다	여행숙박 OTA	75억원		비전에쿼티파트너스, 건설사, 개인투자자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 항공기	70억원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유어케이스	외국인 맞춤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넥스첨단소재	저유전율 FCCL	비공개	지원금	딤테크팁스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